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

중랑 상상마을

2012



중랑구



“여러분과 함께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어 갑니다.”



변화와 혁신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생각보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작은 관심과 할 수 있다는 믿음, 긍정의 마인드로 전환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헨리포드의 말처럼 긍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은 구민의 복지와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 살기 좋고 행복 가득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창의우수사례집은 업무를 하면서 혹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에 대한 작은 관심과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널리 읽히어 보다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어 행복도시 중랑을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 상징물



도시브랜드

그린(Green)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뭇잎**을 이용해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적인 도시 속에서 **무한** 성장하는 중랑구의 모습을 형상화함



배 꽃

봉화산 주변에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늦은 **봄의 하얀꽃**은 중랑구민의 꿈은 기개와 선비정신을 나타냅니다.



느티나무

수관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중랑 구민의 발전적인 기상**을 뜻합니다.



까 치

정원수목과 공원 등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며 **기쁜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중랑구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목 차



1장. 창의행정 주요활동



2장. 우수사례



3장. 우수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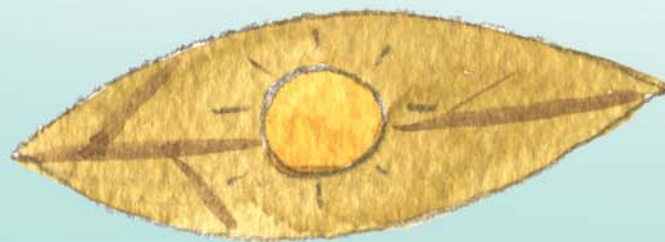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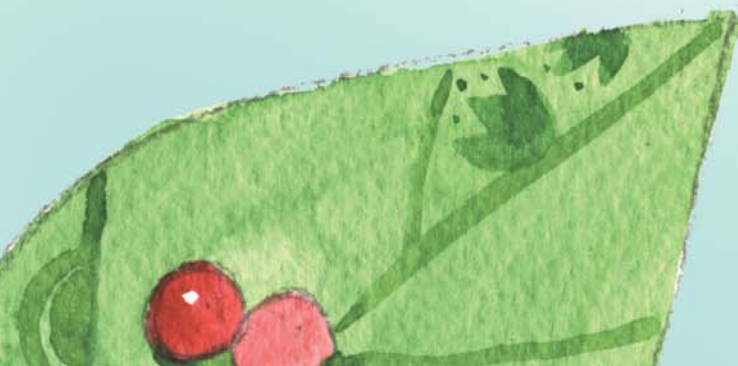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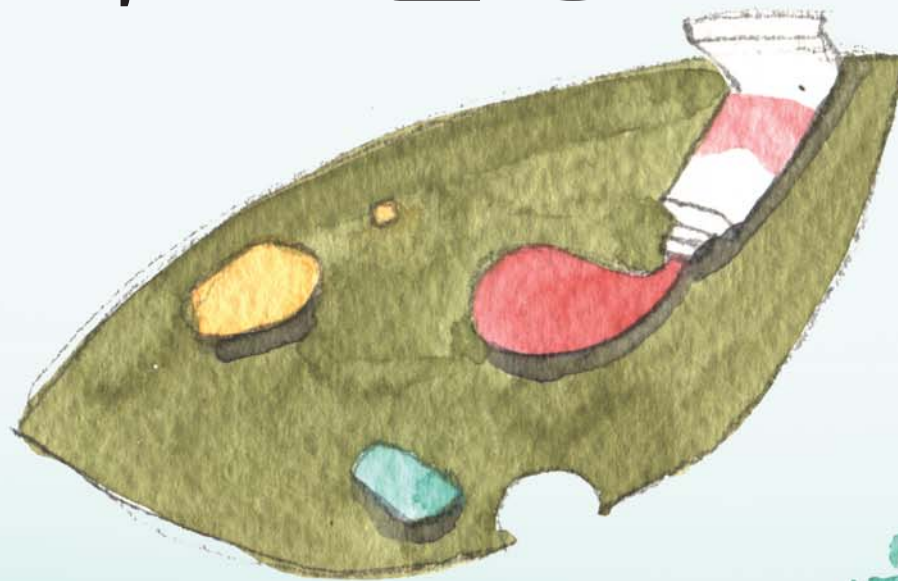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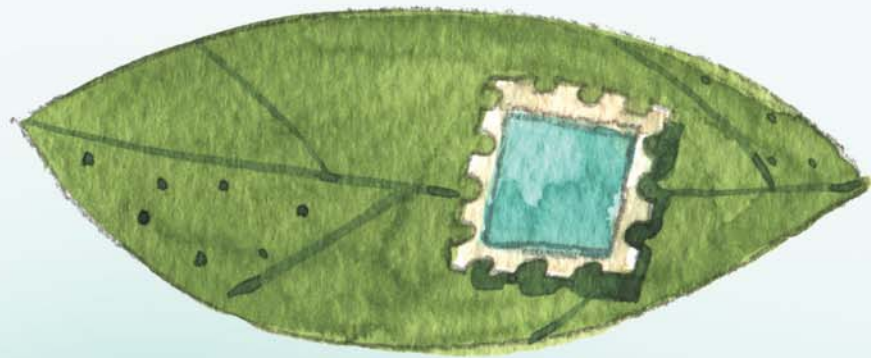


4장. 독서아카데미 우수 독후감



1장

중랑구 창의행정 주요활동



톡!톡! 아이디어 만땅! 중랑 상상마을 !!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운영을 통해 변화를 즐겨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와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 창의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제공

- 내부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창의광장에 답변 글 형식으로 부서의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답변글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
- 창안실행과정을 전자결재게시판 등을 통해 창안관리 형태로 공개

2. 테마 아이디어 토론방 운영

1) 목 적

- 공급자 중심의 자유주제를 모집하고 있는 현행 아이디어 공모와 병행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일정 주제를 가진 테마 아이디어를 공모해 아이디어 채택률 및 실행성을 높이하고자 했음

2) 운영방법

-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부서별로 아이디어 공모하던 것을 총괄해서 공모함으로써 각 부서의 고민 해결
- 여러 직원 및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까다로운 양식을 배제하고 댓글식의 짧은 의견 공모



상상마을의 직원 역량 강화

1. 학습동아리 운영

1) 추진방향

직원들이 함께 학습 분위기 정착과 창의마인드 함양과 제고를 위해 직무별 관심별로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체 교육 및 연구를 통해 구정 발전 및 업무개선 등의 성과를 발굴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활동

- 주어진 학습과제로 토론 및 학습
- 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3) 주요내용

- 학습연구회별로 자율 활동
- 액션미팅 교육
-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결과 평가(연1회)



2. 독서 아카데미 운영

1) 추진방향

• 우수창의도서 및 자기 계발서를 읽은 후 감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정관념 타파 및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 창의구정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운 영

- 행정자료실 및 중랑 구립 정보도서관과 연계하여 e-book 제공

3) 주요내용

- 독서 아카데미 경진대회 실시(연1회)

3. 창의혁신 포스터 교육

1) 추진방향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창의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생활 속에서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식과 정보를 재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

2) 운 영



- 구청사 내 엘리베이터 3곳의 지정된 장소에 주1회 포스터 1장씩 교체 게시
- 내부 전자 게시판 내 해당주에 게시한 포스터에 대한 해설서 및 이미지 담아 매주 월요일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

1) 추진방향

우리구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학습, 공유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고객에 대한 구정의 신뢰성 증대 및 소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내 용

- 지역 주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
- 기타 우리구 성과 및 최신 정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

1) 추진방향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친절 특수 시책 사업발굴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 친절 마인드 확립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실현
- 친절 및 불친절 사례 관리
- 신규 임용 직원 행정서비스 기본교육 실시
- 통합민원, 민원창구 실명제, 양방향 모니터 운영



2 장

우수사례



중랑구에서 만나요!! 여성들이여~ 날개를 달자!

추진배경

- 최근 실업문제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이 그 대안으로 제시
 - 중랑구 면목2동 자치프로그램인 전통공예는 전시회 개최, 일본과의 교류전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공예의 상품가능성을 발견하고 회원모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획득하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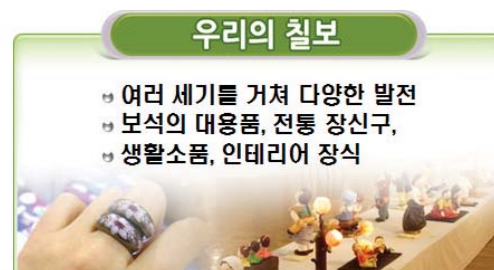


- 한지와 칠보의 상품우수성 발견
 - 한지의 긴 수명과 화려한 빛깔로 인기있는 칠보의 성장가능성 발견



우리의 한지

- ↳ 시간이 흐를수록 고워지는 결무늬
- ↳ 양지보다 몇 배의 긴 수명
- ↳ 천보다도 긴 보존기간



우리의 칠보

- ↳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발전
- ↳ 보석의 대용품, 전통 장신구,
- ↳ 생활소품, 인테리어 장식



외국인들에게 인기



활발한 문화강좌



추진내용

- 잘할수 있는 것을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술력 있는 주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업 설립하기
- 추진개요
 - 사업명 : 전통공예를 비즈니스로 ... ("한지랑 칠보랑")
 - 주관단체 : 동아리 회원과 자치위원
 - 추진과정



장애 및 갈등 극복

- 생필품이 아닌 공예품으로 사업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
 - 마음 바꾸기 : 작가에서 기업가로 마인드 변화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의구심 극복
- 상품개발의 어려움
 - 가치 더하기 : 다양한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공예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지와 칠보작품의 결합 등 상호보완하여 상품개발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식전무

- 묻고 배우기 : 전문기관으로부터 9차에 걸친 컨설팅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기업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CEO가 나서 판매전략, 홍보지원에 주력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식습득

추진성과

- 전업주부에서 강사로!!! (제1호 강사 배출)
 - 인근 자치회관에서 한지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어 자격증이 있는 회원을 제1호 강사로 배출, 앞으로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한지공예 회원들은 학교나 타 자치회관 강사로 활동 예정
-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 제품개발 : 우리나라 전통수공예를 전통관광상품으로 개발 (한지카네이션, 무궁화 맵시 꽃, 칠보 입은 USB)
 - 동서울대학교와 임가공 등 제작 MOU 체결 (1차개발상품: "칠보를입은USB", 2차개발상품: "칠보시계")
 - 자치회관 최초로 사업자 등록 및 로고 자체 제작



● 한판 붙어 보자(대규모 전시회 및 수준높은 전시회 개최)

- 자치회관으로는 처음으로 코엑스전시장에 출전 전국 수공예 전문업체와 경쟁.
- 대전시,부천시에서 벤치마킹하였으며 동서울대학교와 임가공 납품 MOU 체결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입체화전 개최 및 10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가행사인 제2회 세계여성대회에 참여

성공요인 및 향후 발전계획

● 다양한 계층의 취향에 맞는 트렌드 상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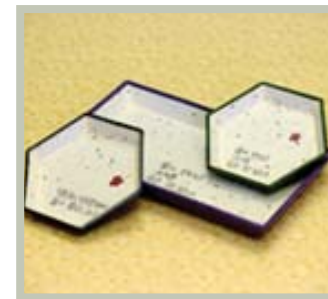
- 젊고 현대적 감각의 상품으로의 이미지 변경과 한지와 칠보의 장점을 접목한 신상품 개발
- 생활소품 등 실용적 상품의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판매 실현

● 교육사업 지원 및 후진 양성

- 관내 학교, 유치원, 다문화가정 등의 체험학습 출강으로 전통공예 보급과 후진 양성
- 일자리의 창출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소통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나감

● 체계적 고객관리 및 마케팅

- 체계적 관리 및 관내 기업체, 단체, 관공서, 유관기관 상품 홍보



한지 + 칠보 = 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탄생

위기청소년인 10대들을 위한 거리상담
달 · 수 · 다(달밤의 수다)

사업목적

-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육성기능이 약화되고
- 학교폭력, 여성폭력, 성범죄 등 사회적 악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 사회적으로 10대 청소년에게 위험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등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 초록상상의 모든 것!

● 초록상상이란...

- 2005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여성환경연대의 지역조직으로 중랑구에 위치한 여성환경단체
- 2007년 5월 초록상상으로 정식활동 시작
- 아토피예방

● **하루일..**

- 아토피예방, 여성건강교육, 어린이 생태교육, 전래놀이, 텃밭교육,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와 공동체교육등을 통해 생태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 **걸어온길...**

- 2005 :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이", "마을에서 행복한 아이" 교육강좌
- 2006 : 봉화산 어린이 생태교육, 종량구 여성 환경의식 조사
- 2007 : 사무실 개소, 초록지구탐험대, 생태안내지양성과정, 1318청소년교실 만들기
- 2008 : 상봉1동사무소 옥상녹화, 환경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아토피 없는 유치원 만들기
- 2009 : 굿바이아토피캠페인, 종량의정모니터링단 발대식, 친환경상품모니터링, 1318청소년센터, 1318마을에서 아시아만나기, 세대별 여성건강교실
- 2010 : 에너지기후변화강사 양성, 건강지킴이교실, 청소년인권영화제, 초록지구탐험대 생태캠프, 어린이집아토피예방교육 등
- 2011 : 마을카페 개소, 에코맘스쿨(면동초, 신현초, 면목초), 찾아가는 여성건강교실
- 2012 : 가출성매매예방 10대거리상담 달수다, 에코맘스쿨(면북초, 상봉초, 망우초, 종량초), 대사중후군예방 프로그램 애지중지, 아토피예방교육, 청소년 별별인문학, 마을에서 아시아만나기, 성폭력예방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출성매매예방 10대 거리상담 “달수다”
- 사업주체 : 초록상상
- 사업일시 : 2012. 5 ~ 10(20회) / 매주 금요일 19:00 ~ 23:00
- 사업장소 :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공원
- 사업내용 : 함께 식사, 성교육 상담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인 10대들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과정

- 현대사회의 공동체 파괴현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중랑구는 학교폭력과 성범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범죄예방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거리상담이라는 사업을 추진
- 청소년 거리상담 자원활동가 모집 (2012.04)

모집기간	활동일정	활동장소	활동시간	활동내용
4.17 ~ 4.30	5월 ~ 10월 (5개월)	7호선 사가정역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11시	10대 청소년과 자유상담

- 자원활동가 모집결과 : 23명
- 자원활동가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19:30 ~ 21:00	초록상상카페	5.2(수) 페미니즘,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전희경:여성학자) 5.4(금) 십대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전희경) 5.6(수) 십대를 위한 성교육 실제(이목소희) 5.11(금) 가출, 성폭력, 성매매 상담실제와 대처법(이목소희) 5.16(수) 10대 지원체계와 거리상담 실제(초록상상 활동가)

- 자원활동가 수료자 20명과 초록상상 활동가 2인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시작
※ 지역사회 참가자 : 소나무상담복지센터, 녹색병원, 중랑교육복지네트워크
중화중학교 사회복지사
- 달수다와 연계하여 성폭력예방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신규개설하여 현재 진행중

【달수다 교육현장】



달수다 교육



자문위원 회의



달수다 토론의 장

사업내용

- 달 · 수 · 다(달밤의 수다)
 - 일 시 : 매주금요일 19:00 ~ 23:00
 - 장 소 : 7호선 사가정역
 - 상담자수 : 580여명(일평균 30여명)
 - 자원활동가 : 19여명
 - 상담현황

알생달성	스케치북 성교육, 알생달성 OX퀴즈, 10대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세우기
방아쥘는 달토끼	생리주기팔찌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서 자기몸알기 천연화장품만들기를 통해 기존화장품 인체유해성 인식하기
달상담	자존감 척도 테스트를 통해 자기 존중감 알아보기 성적자기결정권 테스트 고민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달수다 상담현장】



제1회 달수다



제4회 달수다



제8회 달수다



제12회 달수다

- 성폭력예방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진행(10.23 ~ 11.23 : 10회)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09:00 ~ 13:00	초록상상카페	10.23 여성의 눈으로 본 폭력 (전희경)
		나의 섹슈얼리티 점검하기 (전희경)
		10.30 성폭력 관련법, 여성지원체계 (정혜선)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처방안 (고미경)
		11.6 유아동기~청소년기의 성과 성교육의 실제, 지침 (이권명희)
		11.13 성인교육의 실제 (최미희)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 사례 (좋은 세상)
		11.20 조별 마을성폭력 예방캠페인 기획과 발표
		11.23 여성이 안전한 마을 캠페인 (면목역)

- 현재 23명이 양성과정 진행중이며, 향후 중랑구 마을안전 활동가로 활동예정

- 그 외 다양한 활동들

- 에코맘 스쿨 :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취약계층의 아토피 예방교육 및 여성건강활동 지원
 - 2011년 3개학교(면동초, 면목초, 신현초)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 2012년 6개학교(상봉초, 면목초, 망우초)가 추가되어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진행
 - 교육과정 : 기후변화와 시민사회,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첨가물, 생태교육과 자연놀이, 생활속의 유해화학물질
-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
 - 13개 구립어린이집과 2개 초등학교 어린이대상 아토피 예방교육
 - 후원 : 중랑구 보건소
- 대사증후군 애지중지
 - 대사증후군 예방 캠페인, 건강강좌등 건강모임운영
 - 후원 : 풀무원건강생활, 녹색병원, 중랑구보건소,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사업성과

- 달수다 자원봉사 양성과정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위기를 공감
- 특정공간이나 형식이 아닌 거리에서 진행함에 따라 부담감이 없어 10대와 접근이 용이
- 10대 청소년들의 고민과 상담 향후 미래까지 겸하는 전반적 상담으로 심적안정화를 꾀함
- 10대들이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범죄예방 사회적 시스템 토대 구축
- 길거리 상담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라는 공동체 회복 토대 마련

앞으로 계획

- "달수다"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성폭력예방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진행중에 있으며
- 지역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중랑구(역주변확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 2013년에는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임

동부전통시장 동아리축제

전통시장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Healing)하세요...

사업목적

- 동부전통시장의 위치적, 내부적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고자 상인들이 단합하여
-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아리의 명소로 탈바꿈하고
- 고객과 주민에게 문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동부전통시장의 특징

● 위치적 특징

장 점

- 최신시설의 영화관 개관, 중랑역등 주변 교통망 발달
- 망우로주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조성으로 신규세대가 자연스럽게 유입
- 인근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토착민 거주비율이 높아 단골고객 확보 용이

단 점

- 대형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등 5개 업체)가 포진되어 있어 상권을 위협
- 망우역에 건설중인 주상복합건물과 건설예정인 복합역사는 상업문화공간의 집합체로 문화적 공간도 위협

● 내부적 특징

장 점

- 바닥대리석포장공사(바닥타일)와 공중선 지중하 작업, 노점상활성화정비(30점포)등 환경개선, 젊은 층을 겨냥한 중저가 브랜드매장 입점 등 로데오식거리와 전통시장이 함께 어우러진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제공
- 시장의 넓은 공간으로 문화축제의 장 마련 용이
- 상인들이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이웃과 같은 분위기와 정을 나누는 포근한 이미지 형성

단 점

- 동부시장만의 특화된 상품 부족과 시장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부족
- 상인들의 의식변화 미흡
- 고객과 상인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동부시장
- 사업일시 : 2012.06.24 / 09.16 / 09.23 / 10.28
- 사업장소 : 동부시장 남문과 북측 로데오식거리 야외 특설무대
- 사업내용 : 지역자원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매월 2.4주 일요일 문화동아리 축제 개최

추진과정

- 주변 시설의 상권위협에 따라 위기의식 팽배
- 2011. 05 - 정보화 및 상인대학 이수
 - 나들이 이벤트 행사 개최(연2~3회) ⇒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축제 필요성 대두
- 2012. 03 - 예술동아리 활동 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한 연구등 건강한 시장상권 살리기 위한 회의
- 2012. 04 - 동부시장 상인회의 마토축제 제안
 - ※ 마토축제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엔 축제가 있는 동부시장을 놀러오세요.
 - 대형할인마트 매월2회 의무휴무제로 전통시장 동아리 축제로 확대 변경 추진 (월1회 ⇒ 월2회)
- 2012. 05 - 전문가 특강 유치(서울중앙연극협회장 경상현)
 - 상인회 회의 및 상인 의견수렴후 축제 확정
 - 상인회원들의 자발적인 특별기금 마련
 - 지역단체나, 주변기업의 찬조등 후원자 모집
 - 관내 학교 및 각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참여협조
- 2012. 06 - 제1회 동아리축제 개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 노력들

- 2004년 바닥대리석포장공사(그림타일) 및 공중선 지중하사업, 간판정비, 워닝정비, 가로등설치등 환경개선공사
- 2004년 ~ 현재 : 쾌적한 시장골목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점포선 지키기운동 전개
- 2011년 정보화 및 상인대학 이수 (36명졸업)
 - 교육과정 : 기본과정 10회(21시간), 심화교육 11회(23시간), 선진시장견학 1회
 - ※ 기본교육 : 창조경영, 실전마케팅, 친절서비스, 장사를 잘하는 점포의 특징, 상품특화 전략, 상인조직 활성화 등
 - ※ 심화교육 : 대형점포 대응전략, 쇼핑 명소화 전략, 고객을 유인하는 쇼핑매장 성공법칙, 마케팅과 판매전략등
 - 교육효과 : 시장브랜드 가치 향상 및 마케팅과 판매전략 개선을 위한 노력등 마인드변화로 동부시장 동아리축제의



사업내용

①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축제

▶ 제1회 동부시장 동아리축제 (프로그램 경연대회)

- 일 시 : 2012. 06. 24. 17:00 ~ 19:00
- 장 소 : 동부시장 남문과 북측 로데오식거리 야외 특설무대
- 참가자 : 총 9개 동아리참여(댄스동아리 5개팀, 민요동아리 4개팀)
- 참석인원 : 지역주민 및 상인 1,000여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출연자	프로그램
면목고 비보이팀 EBS	비보이시범
면목5동 민요단	장기타령
중화문화복지민요단	선소리산타령
태릉중 방송댄스팀 "천강유일"	댄스
용곡중 방송댄스팀 베아트리카	댄스
중랑문화원민요단	강원도 아리랑, 양산도, 경북궁타령
중랑문화체육관 민요단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뱃노래
방송댄스 걸스합합 AG팀	댄스
용마중 방송댄스 "폴라리스"	댄스
지역주민 1,000여명 참석	



프로그램 경연대회

▶ 제2회 동부시장 동아리축제 (추석, 한가위 큰잔치)

- 일시 : 2012. 09. 23. 16:00 ~ 18:00
- 참가자 : 서일대학교 댄스, 개그, 마술, 레크레이션등 40여명
- 프로그램 내용 : 마술&저글링, 센세이션(방송, 힙합댄스), 네다코(레크레이션댄스) 용마산(개그의 진수)



한가위 대축제

②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작은 음악회

▶ 직장인 통기타 음악회

- 일시 : 2012. 09. 16. 16:00 ~ 18:00
- 참가자 : 직장인 통기타동아리 15명
 - 프로그램 내용 : 여러지역 회원으로 연합된 직장인 통기타 동아리로 대중음악 선사

▶ 색소폰 및 재즈 음악회

- 일시 : 2012. 10. 28. 14:00 ~ 15:30
- 참가자 : 색소폰 및 재즈동아리 7명
 - 프로그램 내용 : 색소폰 및 재즈공연으로 지역주민과 고객에게 아름다운 음을 선사

사업성과

- 전통시장내 동아리축제로 시장활성화에 기여
- “나”보다는 “우리”,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공동체형성 및 이웃회복
-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공연하고 고객이 관람하는 문화적 공감대형성
 - ㉠ 교육을 통한 마인드향상에 따른 마케팅 전략 변화
 - 상인대학 이수가 전통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아리축제로 귀결
 - ㉡ 상인의 자율적인 축제기금 모금(2,000만원)
 - 스스로 십시일반 축제 기금을 마련(1만원 ~ 5만원까지 다양한 기부)
 - ㉢ 상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축제 운영 참가
 - 횡수가 거듭할수록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참가인원 증가
 - 다양한 상품기부(족발, 두부, 커피, 떡볶이, 떡등 물품교환권)로 풍성한 축제로 거듭남

앞으로 계획

- 동부시장 문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적공동체 활동 지속
- 매월 2,4주 일요일 축제와 더불어 각종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가는날로 인식 전환 노력
- 축제와 함께 동부시장 사진전 및 미술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부시장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
- 음식 만들기 체험(김밥, 만두빚기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마련
- 유치원, 초등학교등 작품전시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친근감 확보를 위해 노력
- 상인간 또는 상인과 지역주민간 올바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



직장인 통기타 음악회



색소폰 및 재즈 음악회

중랑구,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중랑구가 올해 처음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시행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명실공히 높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인증제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기반구축(Driver), 서비스 운영(System) 및 성과(Result) 등 3개분야 140개로 구성된 진단내용을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준 진단하고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제도이다.

중랑구는 2012년 8월 말까지 자율진단모형을 자체 진단하고 근거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우수기관 자격(800점 이상)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하였고, 10월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 2차 인증신청 기관간 온라인 교차심사, 3차 교수 및 기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856.20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그동안 중랑구는 2011년 서울시 시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최우수구, 2011년 서울시 하반기 민원서비스(민원응대 친절분야) MVP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바, 이번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은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관은 인증마크(그림)를 자유롭게 활용·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인증마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국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어, 서비스 수혜자(국민)와 제공자(기관) 모두를 미소짓게 만드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인증수여식이 끝난후 인증마크는 공문서 및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이번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 성과에 힘입어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높은 수준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랑구의 인재양성은 중랑인의 힘으로”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에 공무원, 구민 참여 잇따라

기부운동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5천여 만원 모금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랑구청 직원들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민들과 함께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였으며,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 하였다.

주민들 중 기부운동에 참여한 주민은 “기부라고 하면 왠지 큰돈을 내야하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의미 있는 장학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선뜻 참여할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흐뭇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중랑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랑장학기금은 2008년 구 출연금 30억과 민간기부금등을 합쳐 총40억 여원을 조성하여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2010년 284명, 2011년 324명, 2012년 278명 총886명에게 총1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장학생 선발은 학교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교육발전의 필요성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며,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은 비단 장학기금의 조성 뿐만 아니라 구민을 하나로 묶는 마을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구가 살기좋은 명문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부운동에 참여해 주신 구민·기업체·공무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랑구의 **「중랑」**은
중랑인의 **「중랑」**입니다

2012년 9월1일부터
「중랑장학기금111기부운동」을
시작합니다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이란?
1가정이 1년에 1만원
중랑장학기금 기부 동참을
의미합니다.

중랑장학기금 기부운동 필요성

- 교육정책 특성 : 「소득별 시교육비 격차 완화」 교육격차 심화 해소
- 특성인성 : 지역적 우수성 인정 발굴 - 육성 및 교육경쟁력 확보
- 지역발전 : 교육적 기회균등과 학력신장 도모

중랑장학기금 기부방법 안내

- 중랑장학기금 지정 계좌(무이자) 1000-601-37775(입금)
- 중랑구내에서(중랑구내) 3422-5962~5, 3422-5962~5, 3422-5962~5를 통해
중랑장학기금으로 지정 기부
- 배달 : ①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기부서 작성 후 : 30% 세액공제)
② 중랑교육문화재단(jump.jungrang.seoul.kr) 내 기부서 작성(연말정산 후)

중랑구 교육지원과 2094-1880~3

중랑구의 **「중랑」**은
중랑인의 **「중랑」**입니다

‘중랑교육의 꿈과 미래’
여러분이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이란?
1가정이 1년에 1만원 중랑장학기금 기부 동참을 의미합니다.

중랑장학기금 기부운동 필요성

- 교육정책 특성 : 「소득별 시교육비 격차 완화」 교육격차 심화 해소
- 특성인성 : 지역적 우수성 인정 발굴 - 육성 및 교육경쟁력 확보
- 지역발전 : 교육적 기회균등과 학력신장 도모

중랑장학기금 기부방법 안내

- 중랑장학기금 지정 계좌 500
- 연말정산 1000-601-37775, 7월연말 2012-08-01~04-01
- 중랑구내에서(중랑구내) 3422-5962~5, 3422-5962~5, 3422-5962~5를 통해
중랑장학기금으로 지정 기부
- 배달 : ①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기부서 작성 후 : 30% 세액공제)
② 중랑교육문화재단(jump.jungrang.seoul.kr) 내
기부서 작성(연말정산 후)

중랑구 교육지원과 2094-1880~3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이란?

1가정이 1년에 1만원 이상 중랑장학기금 기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랑구는 구민 누구나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에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랑교육포털 JUMP(<http://jump.jungrang.seoul.kr>)에 기부방법 등을 자세하게 게재하였고,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과 아울러 장학기금 적립내역,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게재하여 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2020년까지 중랑장학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별 최고 지도자 양성이라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매년 구출연금과 민간기부금 10억을 목표로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랑장학기금 100억 조성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에서는 큰 금액 일 수 있으나, 전 구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중랑장학기금이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3 장

우수동아리





중랑구 학습 동아리 별뿔

“별뿔”은 순 우리말로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마한 햇빛의 기운이라는 뜻이며 급증하는 복지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고객 만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동아리이다.

2012년에는 분과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두가지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연구과제는 “유기견과 홀몸노인 매칭사업”이라는 특색사업을 연구, 대화 상대가 필요한 홀몸노인에게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두 가정과의 입양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시정논문 발표에서 “장려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시상금 100만원을 중랑장학금 111 사업에 전액 기부하는 등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책자로 발간하였고, 2013년에 사회복지 직무교육의 교육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개설된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인 모임과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중랑구 동아리 평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 사회복지 업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연구 내용의 미미한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가 주도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랑구 사회복지분야 연구발전 동아리 랑인애



“중랑구 랑인애 동아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의 주민복지를 위한, 분야별 ITEM에 대한 연구실적을 쌓아 장기적인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2012년 4월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2팀으로 나누어 매월 1~2회(1째주, 3째주 수요일)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동아리 운영 주요 실적으로는 『2012년 하반기 서울시 공무원 시정연구개발 논문』에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랑구 전체 자원봉사자 D/B자료를 통해서 중·고생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서 시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매년 말 기준의 독거노인 현황자료를 근거로 중랑구의 취약계층 노인의 단독가구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위기노인 단독가구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응모하여 우수작에 선정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랑인애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구 시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업무추진시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랑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연구할 것이다.



중랑구 직무발명 동아리



“중랑구 직무발명 동아리”는 도로, 하수도, 교통 등 직무관련 도시시설물(도로, 교량, 하수관거, 하천, 교통, 도로부속시설물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경제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시설물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2012년 9월 도로과장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1~2회(2째주, 4째주 화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리 운영 주요 실적으로는 『보도침하방지용 경계석』을 연구 개발하여 특허청에 디자인특허를 출원 신청하여 특허 심사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대한 토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시공사례 위주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공사감독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동아리 활동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5천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2012년 중랑구 창의학습 동아리 평가에 서도 장려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무관련 도시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도시시설물 관련 제품을 특허 출원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횡단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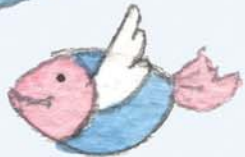




4 장

독서아카데미

우수 독후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고

소속 _ 세무1과 | 성명 _ 최 원 숙

언젠가는 꼭 도전해 보고 싶었던 책이다. 책의 분량에 놀리고, 그 내용의 다양성에 놀렸던 그 책. 드디어 통독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10번 이상은 다시 읽어야 된다는 숙제를 남기는 독서였다. 서양 최초의 역사가이자 이야기꾼이 전하는 이야기를 읽은 첫 번째 소감을 세 가지 주제로 간단히 남기고자한다.

첫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여행한 느낌이다.
지중해 주변과 아시아에 이르는 대 제국안에 있었던 그 많은 민족, 부족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기술은 나로 하여금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관습에 대해 많은 소개를 했는데,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남자들은 집 안에서 배를 짜며, 짐을 남자들은 머리에 이는데, 여자들은 어깨에 멘다. 오줌은 여자들이 서서 누고, 남자들이 앉아서 누다. 남자는 부모 부양 의무가 없으나 여자는 부모 부양의무가 있다.'는 소개를 보면 현재의 우리 모습과 상반된 생활상을 보여준다. 이집트 외 여러 부족들의 가족구성 및 혼례 문화는 대부분 처첩제 수용과 아내들의 공동소유 같은 생활상을 볼 때 다산이 장려되던 시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정복당한 부족은 죽이거나 노예로 삼던 시대에 아마조네스 부족(전설상의 호전적 여인족)에 대해 스키타이족은 그녀들을 자신의 부족들의 청년들과 결혼시키려 노력한 이유는 건강한 2세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보면 부족의 존립을 위한 다산과 우월한 종족보존의 절박함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지역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가고 싶게 한다. 문명의 교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변국들을 하나의 문명공동체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 훑어 본 듯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여러번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Herodotus

헤로도토스 역사

헤로도토스 / 박현배 옮김



둘째, 권력과 인과응보

이 책의 가장 큰 줄거리는 페르시아전쟁사이다. 주변국들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자들의 출현과 죽음을 나라별, 부족별 소개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한다.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이란 무엇일까?

그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처참한 살육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돌아갔다. 결국 ‘인과응보’인 것이다. 그 권력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지배자의 백성들은 페르시아제국생성이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은 권력의 한 축이다. 현대의 세계는 경제(돈)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대한 세계경제화의 모멘텀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추구해야할지 방향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권은 없었다. 자유를 지키는 길을 택한 아테나이

나의 지나친 단정일까? 하긴 싸움터에서 인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겠다. 조금만 약하면 침탈당하고 부족전체가 노예가 되는 상황이었으니 무조건 강해지고 볼 일이었으리라. 싸울 수 있는 용사의 배출이 우선시 되었으니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가장 최악이었고, 특히 노예나 지배당한 부족에 대한 처우는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없었던 시대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 전체에서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두 구절이 있다.

하나는 스파르테의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크레스크세스)에게 망명한 데마라토스는 헬라스인이 페르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 ‘헬라스는 원래 가난한 나라로 지혜와 엄격한 법 덕분에 용기를 갖게 되었고, 또 용기 덕분에 가난과 독재를 물리칠 수 있었사옵니다.’ 라면서 다른 헬라스인들이 투항한다 하더라도 라케다이몬인들은 싸울 것이라고한 구절이고, 또 하나는 지혜의 도시인들 아테나이인들이 헬라스의 자유를 지키는 길을 택해 페르시아 왕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이다. 지혜와 엄격한 법 그리고 자유를 사랑한 헬라스인들의 부국과 자유를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에서 진정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지혜의 추구하고 자유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 현대의 지식사회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헤로도토스의 역사기술원칙은

‘나는 들은 대로 전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대변하지 않고

상이하거나 때로는

상반된 견해들을 병기하기도 한다.

흔히 텍스트에 얽한

현대인들이라고 한다.



‘역사’를 읽으면서 먼저 유념할 사항이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기술원칙은 ‘나는 들은 대로 전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을 대변하지 않고 상이하거나 때로는 상반된 견해들을 병기하기도 한다. 흔히 텍스트에 약한 현대인들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저자는 악어가 혀가 없는 동물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은 악어는 혀가 짧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실수를 찾아내는 역자의 설명도 깨알 재미를 선사한다.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심어줬다.

그리고 또한 매년 1번씩 읽으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의무를 부여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저자 : 헤로도토스 (HERODOTOS)

BC 484~BC425, 그리스 역사가. 키케로 이래 역사의 아버지로 불린다. 젊었을 때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할리카르나소스에 독재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던 리그다미스와의 항쟁에서 패해 온 가족이 한때 사모스섬으로 옮겼던 것 같다.

BC445년 무렵 페리클레스가 활동하던 아테네를 방문, 페르시아전쟁사의 한 토막을 연설하여 인기를 얻었으며 BC443년 아테나이가 남이탈리아의 투리오이시를 건설할 때 참여하여 그 시민이 되었다. 말레투스의 헤카타이오스처럼 직접 견문을 찾아 동방세계를 널리 여행하여 흑해 북안으로부터 페니키아 여러 도시와 바빌론을 거쳐 이집트,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 엘레판티네, 아프리카 북안의 키레네에까지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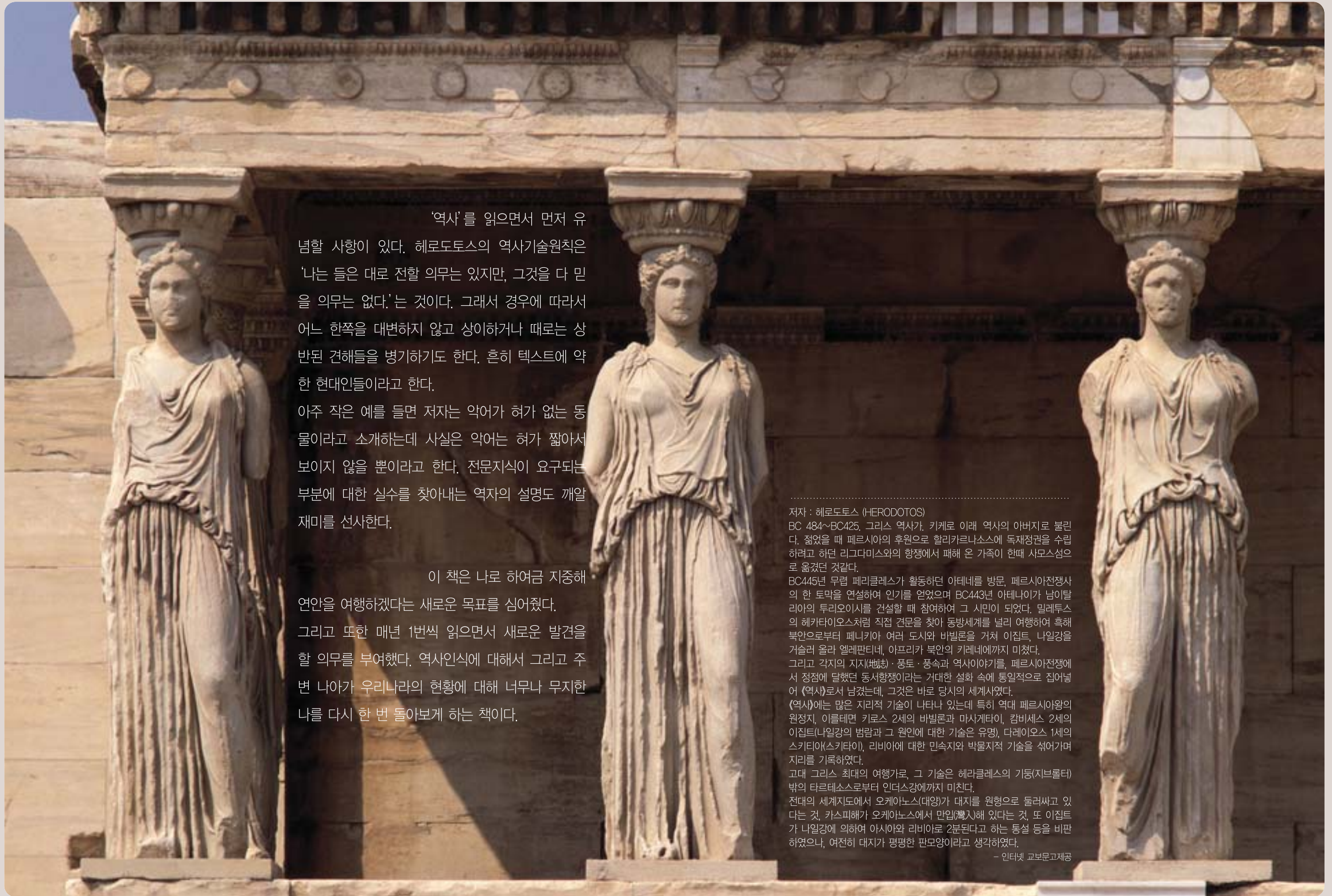
그리고 각지의 지지(地誌)·풍토·풍속과 역사이야기를, 페르시아전쟁에서 정점에 달했던 동서항쟁이라는 거대한 설화 속에 통일적으로 집어넣어 《역사》로서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의 세계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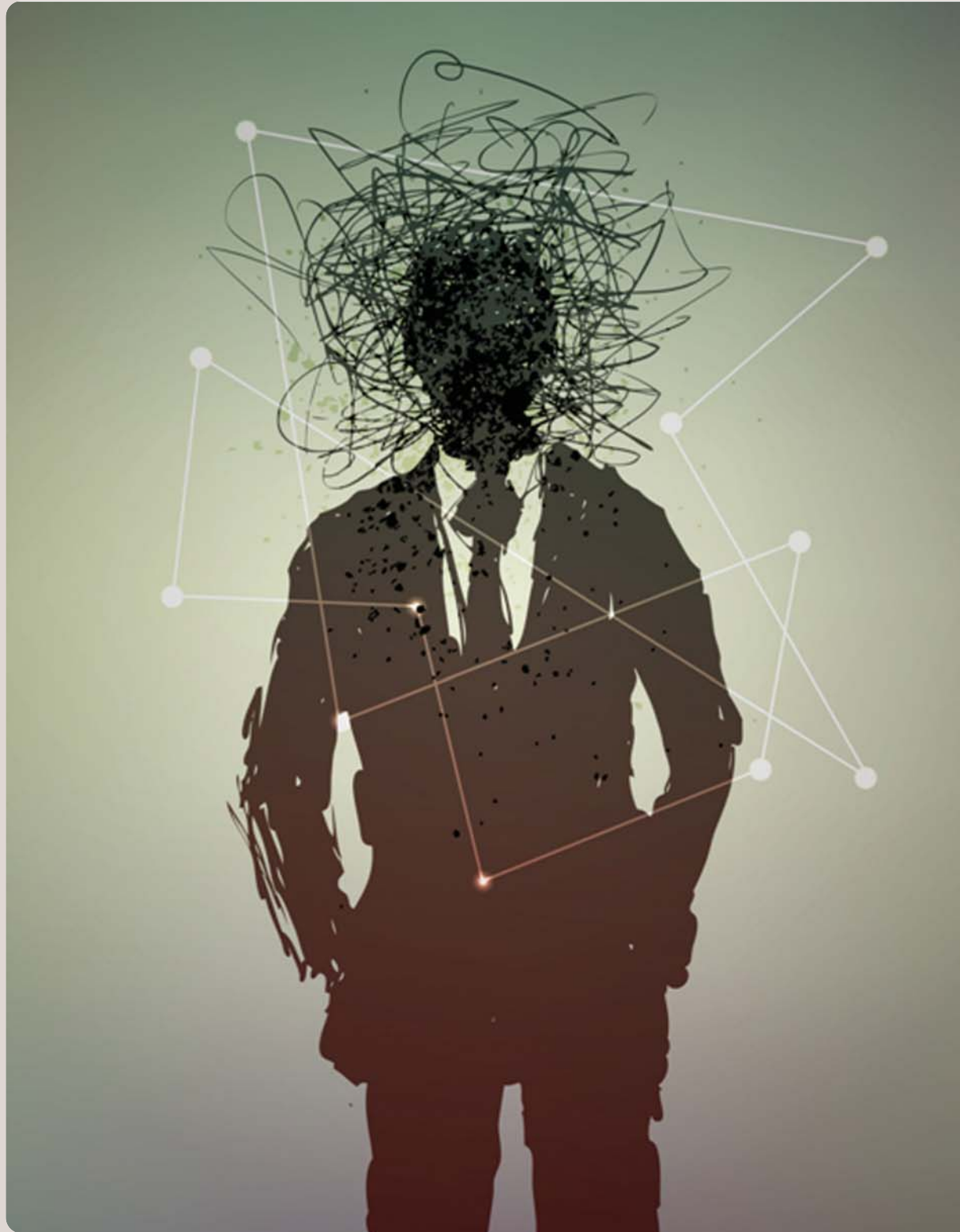
《역사》에는 많은 지리적 기술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역대 페르시아왕의 원정지, 이를테면 키로스 2세의 바빌론과 마사게타이, 캄비세스 2세의 이집트(나일강의 범람과 그 원인에 대한 기술은 유명), 다리우스 1세의 스키타아(스키타이), 리비아에 대한 민속지와 박물지적 기술을 섞어가며 지리를 기록하였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여행가로, 그 기술은 헤라클레스의 기동(지브롤터) 밖의 타르테소스로부터 인더스강에까지 미친다.

전대의 세계지도에서 오케아노스(대양)가 대지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 카스피해가 오케아노스에서 만입(灣入)해 있다는 것, 또 이집트가 나일강에 의하여 아시아와 리비아로 2분된다고 하는 통설 등을 비판하였으나, 여전히 대지가 평평한 판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 인터넷 교보문고제공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응축한 청춘을 발산하기”

감사담당관 _ 김명완

“불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설마 “불금”이 상상 되는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제법 연세가 있는 분이실 확률이 크다. “불금”이란 “불타는 금요일”을 줄인말로 요즘 청춘들이 화끈하게 즐기는 금요일 밤을 말한다. 젊음의 거리 홍대, 신촌, 강남 등을 가면 불타는 금요일답게 새벽까지 자신을 발산하고 토해내는 젊은이들로 가득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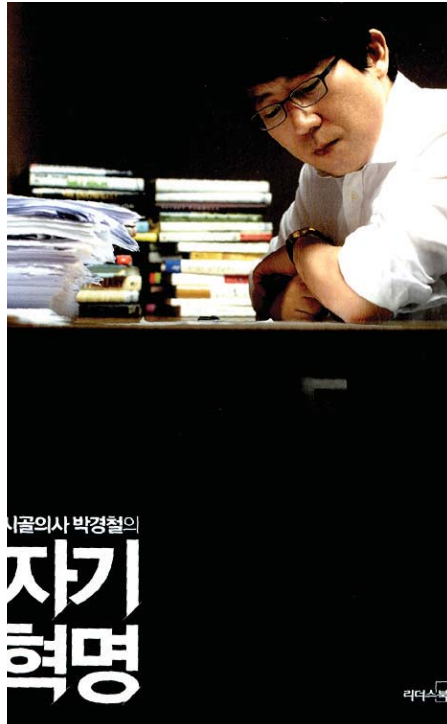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베스트셀러 ‘아침형 인간’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철저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 개발 서적, 조직에서 원하는 뛰어난 인간이 되기 위한 처세술 책들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88만원세대를 사는 아픈 청춘을 위로하기 위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토익공부를 하고, 어학연수를 가고, 인턴사원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아도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기 힘든 그들에게 이제 세상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 혁명이라는 책은 혁신독후감 단골책이다. 아마 저자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에 자기혁명이라는 혁신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제목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지극히 20대 청춘들에게 고하는 멘토의 조언으로 가득한 책이다. 나는 청춘도 아니고 위태롭게 방황하지도 않으며, 방향성을 잡기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안정적인 30대 공무원일 뿐이다. 이런 내 위치에서 이런 뜨거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나의 20대는 막연한 공부와 학점 관리, 그리고 남들따라 적당히 토익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는 것으로 중반을 넘겼다. 복학생이 되어서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고민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치열하고 특별한 고민없이 선택했던 나의 길을 말 그대로 무난하게 잘 지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지 않았던 내 청춘이 후회되지도 않았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단어들이 날아들지도 않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슴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미 지나버린 20대를 후회해서 어쩌란 말인가... 그저 너무 나만의 세상에 날 가두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채, 그저 눈 앞의 현실만을 보고 산건 아닌지 고민하게 했다. 잠시 멈추고 주변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분노해야할 대한민국 모습도 많고, 또한 작은 노력으로 내가 변화시킬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을 하고 내집을 장만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고.. 사실 이렇게 성실하게 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이것 저것 하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힘든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고 싶을 때 자신을 다잡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내가 인식하는 만큼이 내 세상의 크기라면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작고 가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는 애 늙은이 일수록 환영 받는다. “요즘 애들 같지 않네”라는 말이 칭찬으로 쓰이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대비하고 연금보험, 펀드 다양한 재테크를 하는 똑똑한 젊은이, 윗분들의 마음을 읽고 씩씩하게 행동하는 조로운 청년을 조직사회는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텐데, 은퇴후 연금을 위해 이 아까운 청춘을 사는 것이 분명히 아닐텐데 그 이유를 나 말고 누가 찾아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알고 있는만큼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간다.
‘아직 젊다’는 특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자꾸 자꾸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공부할 시기는 아닌 듯하고,
이제는 내가 가진 인식, 시각에 대한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선택이란 다른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버리는 것이라 했다. 상황에 몰려서 어쩔수 없이 하는 선택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또다른 강요라 했다. 어쩌면 나는 하루 하루 무언가 어쩔수 없는 현실적 강요에 의해 다른 하나를 지속적으로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나에게 다른 일상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창의성을 고민한다면, 사람을 만나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땅을 밟되 처음 밟는 땅을 밟고, 책을 읽되 생소한 분야를 읽으라 한다. 틈나는대로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만큼 자기 세상의 크기를 넓히고 나 자신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청춘은 ‘발산’이 아니라 ‘응축’의 시기라고 저자는 말했다. 청춘의 뜨거운 불길을 함부로 토해내고 방황하면서 소진하지 말고 뱃속으로 깊이 삼켜 응축하라고 말한다. 가슴속에 품고 다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천둥처럼 쏟아내라고 말한다. 20대가 이렇게 응축하는 시기라면 바로 30대는 이것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기라는 뜻일 것이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초반 몇 년. 당연히 아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바쁘고, 시키는대로 겨우겨우 해내기 바빴던 시기를 무사히 보냈다. 이제 응축했던 자기 안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직, 간접적으로 체험한 양이 많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응축한 자는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아주 조금 후회가 밀려온다. 축적해 놓은 밑천이 금새 바닥날 것 같다. “공부는 평생해야 한다”는 격언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 역시 쌓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만큼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간다. ‘아직 젊다’는 특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자꾸 자꾸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공부할 시기는 아닌 듯하고, 이제는 내가 가진 인식, 시각에 대한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인생에서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기고자 한다면, 20대를 치열하게 살고 30대에는 내가 가진 마지막 한방울의 열정까지 모두 토해내며 거침없이 달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지나버린 20대를 회한한들 무엇하리.. 얼마남지 않은 30대라도 무한 발산 해볼까?

저자 : 박경철

외과전문의로 본명보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그는 냉철한 경제전문가, 통찰력 넘치는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로 중형무진 활동중이다. '혼자 내딛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이 손잡고 나아가는 한 걸음의 가치'를 말하는 박경철은 수식어가 모자랄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담아 펴낸 첫 에세이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2》에 이어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이 연이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이후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시골의사의 만화 부자경제학》《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_1 통찰편》《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_2 분석편》을 출간했다.

중앙일간지와 유력 잡지 등에 인문학적 통찰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준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한 달 30회 넘게 출강하는 인기 강연자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MBN의 〈경제나침반 180도〉와 〈생방송 경제공감〉 진행자로 있었고, 얼마 전까지 KBS2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를 진행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기도 했다. 현재 매일경제TV MBN 전문위원,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 전문위원,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장 등 공익단체의 임원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있다.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2》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집중해왔는데, 이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청춘 콘서트'로 이어졌고, 그는 청춘의 멘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강연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뜨거운 가슴과 맑은 눈빛, 그들의 고뇌와 방향은 그에게 반성의 계기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그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을 이 한편의 책으로 엮어냈다.

- 출판사제공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총무과 _ 김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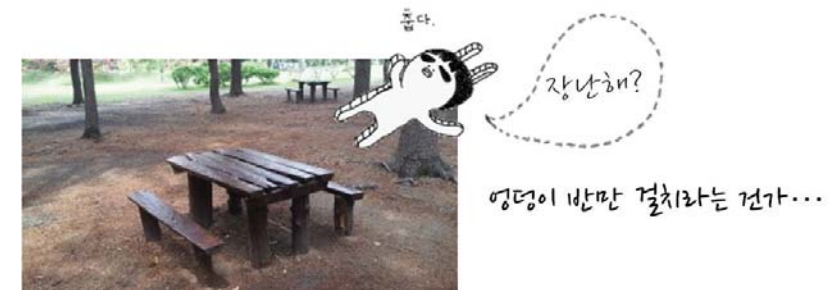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알고 있는가? 남녀사이의 연애 뿐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밀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했던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가 일상다반사이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에 피로감을 느낀 나는 책 한 권을 들고 홀연히 여행을 떠났다.

평일 날 찾은 남이섬은 한산했다. 흙냄새 나무 냄새 가득 한 곳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책을 읽기를, 나는 얼마나 소망했던가.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당한 곳을 발견해 책을 펼칠라 치면 단체관광객이 곧 옆자리를 차지해 주변이 금세 부산해졌고, 또 남이섬의 벤치들은 왜 하나같이 좁고 등받이도 없는지 엉덩이가 아파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오래된 로망을 포기할 수도 없어 곧 자리를 잡고 책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페이지를 넘겼다. 카피 문구처럼 이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정말 알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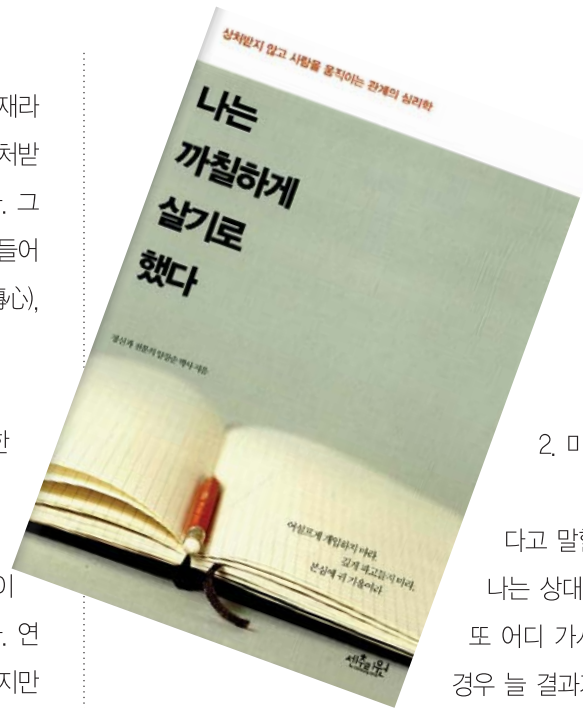
1.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까칠하게 살기 1단계, 먼저 남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왜 내 맘을 몰라주지?’, ‘꼭 말로 해야 아나?’ 하며 서운해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남이섬의 벤치 하나도 내 마음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 ‘눈빛만 봐도 알아요’와 같은 이야기는 허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실험을 했다. 대학생 두 명을 한 조로 짝지어 한 명에게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은 제목을 맞추게 한 것이다. 연주자들은 파트너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답률은 어이없게도 2.5%에 지나지 않았다. 연주자 스스로는 감흥을 담고 박자를 맞추어 알기 쉽게 연주했다고 믿지만 사실 상대에게는 그저 ‘탁탁’ 두드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내 취향이나 생각, 느낌들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또 진실에 가깝다고 믿곤 한다. 상대에 대한 내 느낌이나 판단은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나 행동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상대를 ‘틀린’ 사람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서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시인 황인철은 어떤 방식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혹은 완전한 관계는 없다고 말한다. 인간관계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세상에 내 마음과 완벽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항상 숙제다.

2.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바로 이거다. 상대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까칠하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지. 2단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상대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의견을 고집하면 상대가 마음 상해할까봐, 또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할까 싶어 중간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마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경우 늘 결과가 안 좋았다. 애초부터 내 의견이 아니니 당연히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고 또 상대방도 ‘너도 관찮다고 했잖아!’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작가는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스스로의 본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고민한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조심하고 신중해지는 것이다. 내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승리를 거두었다. 남들에게 관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다소 불편하게 여긴다. 남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일까? 하지만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내가 정말 싫다고 고민하면서 왜 정작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까칠하게’ 굴지 못할까? 그건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견뎌 낼 용기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한다. ‘과연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도 될까, 남들이 날 건방지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데 사실은 상대도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해결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편에서 먼저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모른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지 말자.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자만하지도 위축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이렇고 저런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즉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쯤은 까칠하게 살아볼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여보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더욱 잘 지내면 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 있다면 고치면 된다. 하지만 비난뿐인 말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3.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든다.

또 어느 때는 목이 타도록 사람이 그림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항상 숙제다.”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사람을 처음 만나면 거리가 멀었다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감이 생긴다. 사람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를 각각의 나무들로 채워진 하나의 숲이라고 생각해보자. 숲을 멀리서 보면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 우리도 멀리서 보기에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들처럼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각각 다른 간격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위 말하는 ‘맞는 사람’과는 좁은 간격을 ‘맞지 않는 사람’과는 넓은 간격을, 왜 모든 사람과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고 하지?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니 한결 마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남과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까칠하게 산다는 건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자칫 까칠함을 무례함이나 이기적인 것과 혼동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건강한 까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의견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만 한다면 그



것은 '무식'한 것이지 까칠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켜야한다. 음식도 날 것으로 먹으면 자칫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매너라는 조리를 거치지 않으면 불필요한 상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까칠하게 살아보기가 그냥 참고 살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까칠하게 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공감과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숨이 나왔다. 책을 덮고 주변을 둘러보자 그제야 내가 앉은 자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 앞에 펼쳐진 호수는 햇빛을 품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무언가를 만들려다 만 듯, 지저분한 목재들이 잔뜩 쌓여 있어 볼품 없는 풍경을 하고 있었다. 상대의 창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까?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던 풍경이 다른 누군가의 시야에서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까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창으로 세상을 보아왔을까.

그래,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지 말자.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자만하지도 위축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이렇고 저런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즉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쯤은 까칠하게 살아볼까?



저자 : 양창순

저자 양창순(정신과 전문의)은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조현증 환자와 일반인에서 한글을 지각하는 데 대뇌의 어느 부위가 주로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각과 대뇌의 관련성뿐 아니라 한글이 표음문자이면서 표의문자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다.

개인적으로 서양의 정신의학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한계를 느껴 다시금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해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양의 주역과 서양의 정신의학을 접목한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Harbor-UCLA정신과 방문교수 등을 거쳐 현재 양창순 신경정신과/대인관계클리닉 원장으로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이며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및 펠로우, 미국의사경영자 학회 회원이다. CBS 시청자 위원회,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방송 활동으로는 SBS의 '양창순의 라디오카페', 기독교 방송의 '양창순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등을 진행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EO에서 100회 이상 <심리클리닉>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리더들의 마음경영',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CEO, 마음을 읽다』, 『나는 왜 사랑을 못하나』, 『미운 오리새끼 날다』 등 다수가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소속 _ 문화체육과 | 성명 _ 박성택

올해 여름휴가는 서천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회사의 연수원 콘도에서 보냈다. 모처럼 아내와 단둘이 떠나는 휴가라서 일주일간 마음껏 늦잠을 자며 게임을 피우리라.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책을 읽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새벽같이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을 반복하는 도시생활에서 주말에는 집안 허드렛일과 대소사를 챙기느라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일주일의 휴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휴가가기 전 책방에 가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포함한 몇 권의 책을 구입하였다.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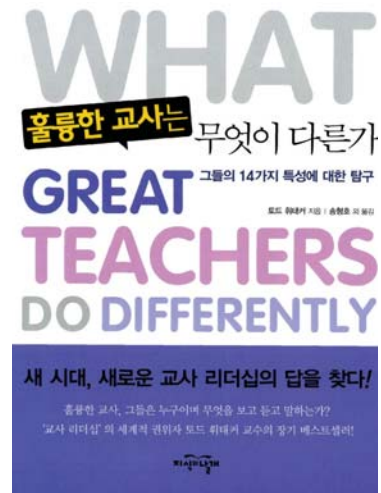
요즘은 교단이 무너졌다고 한다. 또는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60, 70년대 교육받은 나에게 선생님하면 안 좋았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여름날 피약벌이 내리쬐이는 토요일, 오전수업이 끝나면 초등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지루한 일장훈시를 하시던 나이 지긋한 교장선생님, 30분 이상 계속되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도 훈시는 계속되었다. 특정학생을 편애하는 선생님, 체벌을 일삼는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떠오른다.

나는 학창시절에 비교적 범생이였는지라 많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같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께 매 맞는 것을 지켜본 고통이 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수업시간 전에 동네 친구들 두 명이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있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나중에는 때리는 손바닥이 아팠던지, 아니면 분에 못 이겨서인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뺨따귀를 때렸다. 그리고 교탁 옆에 손들고 꿇어 앉힌 체 수업을 하셨다. 아픔과 체념과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두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고,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대관절 이제 겨우 10살 남짓 어린것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기에 그토록 심하게 때렸을까?

우리 세대는 학교 선생님에게 매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랐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참으로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체벌과 군대에서 구타가 일상화되었던 그 이면에는 일본이 조선을 36년간 강압통치하면서 조선놈들은 패야 된다는 일제의 잔재가 군사독재시절을 거쳐 이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씁쓸했다.

그런데 6월 어느 날 인터넷신문 기사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제교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한답시고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 귀족-평민-노예로 등급을 나누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노예’ 등급인 학생에게는 하급생 교실에 가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노예입니다’라고 외치게 하는 망신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 교사가 교단에 있는 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그 상처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갈 그 학생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렇듯 선생님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로 각인된 나에게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은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경우라 교육여건이 다르겠지만 저자는 38년간 학교 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얻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해 훌륭한 교사가 가진 열네 가지 특성을 유추해 냈다. 그중에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몇 가지를 상기해 본다.



“**훌륭한 교사는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는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도 빠져나갈 허점은 있기 마련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잘못을 할 때 처벌이 아닌 예방에 집중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딱밤때리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신뢰 회복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며, 스스로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갖는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훌륭한 교사는 교실안의 변수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라고 생각한다. 시험을 보거나 과제물을 내줬을 때 학생들이 잘해내지 못했을 경우 우수한 교사라면 교사 자신을 탓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관리자, 심지어 작년담당교사, TV 등에 원인을 돌린다고 한다.

“**훌륭한 교사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 않은 교사는 무언가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 최고의 교사는 고칠 필요 없어도 늘 고쳐 나가지만 미숙한 교사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 몸짓, 어조, 기분상할 때 학생들에게 하는 태도 등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한다.

“**훌륭한 교사는 관계 개선에 늘 힘쓴다**” 어려운 학부모를 대할 때도 ‘미안하다’ ‘유감이다’라고 말하는 센스를 발휘할 줄 알고, 학생들에게도 사과의 기술을 가르치라고 한다. 교사가 반드시 학생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듯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칭찬도 훈련이다. 칭찬할 때는 진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순수하게, 사적으로 칭찬하라고 한다.

“**훌륭한 교사는 모르는 척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 중에는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관심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교사는 정리되지 않은 주방에서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장과 같다. 사소한 소동은 모른 척할 줄 알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제압할 줄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가장 편해지고 누가 가장 불편해질지를 고려한다.**” 결정이 무능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최소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무능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이고, 한 두 명의 문제아에게 써야할 방법을 잘하는 학생에까지 적용한다면 이들은 쓸데없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배려한다. 행동과 믿음이 감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감정에는 변화에 불을 지피는 힘이 있음을 이해한다**”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와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뒤 맨 먼저 온 느낌은 미국이 부러웠다. 부자나라 미국이 아니라 이런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을 따르는 수많은 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께 38년간 교육을 받았을 미국의 학생들이 부러웠다. 모든 교사가 이 책대로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읽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런 선생님에게 자식이나 손자들의 교육을 맡기고 싶다.

오늘날 한국 교단의 문제,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학생과 선생님의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면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없고 치료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결국 내부에 있지 않을까? 모처럼 읽은 책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아서 올해 여름휴가는 더 보람이 있었다. 또 이 책을 번역하신 송형호선생님은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면목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더욱 반가웠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하고 싶다.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교단의 희망과 선생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저자 : 토드 휘태커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교수, 교육 관련 컨설턴트, 강연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미국 내에 잘 알려져 있다.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해 8년간의 교장직을 거쳐 1993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학문적으로 객관화하여 교사들에게 많은 찬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교사 시절 학교 농구팀 코치로 활약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울 만큼 교육자로서 모든 일에 관심과 열정을 기울인다. 교사 리더십, 교장 리더십, 수업지도, 동기부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회 이상의 강연, 공저를 포함 21권에 달하는 저서, 그리고 매년 50개가 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통해 전 세계 교사와 독자들을 만났다.
그가 쓴 베스트셀러로 WHAT GREAT PRINCIPALS DO DIFFERENTLY, TEACHING MATTERS, MOTIVATING & INSPIRING TEACHERS, DEALING WITH DIFFICULT TEACHERS, DEALING WITH DIFFICULT PARENTS 등이 있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용인술의 대가 제갈량 인간 경영 지혜를 베낀다

소속 _ 면목7동 | 성명 _ 이영기

몇 년전 삼국지를 읽었는데 처음의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도 흥미로웠지만 삼국지의 참맛은 제갈량이 등장하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신비롭게만 보여졌던 제갈량에 대한 기대감은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저자는 제갈량의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들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유명한 삼고초려가 제갈량의 기획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대목이다.

‘삼국지 연의’를 읽은 사람이라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 삼고초려 장면에서야 비로소 유비 집단의 앞날에 흥미진진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전의 유비는 관우, 장비와 도원 결의를 하고 함께 창업을 선언했지만 중앙정권을 장악한 조조와 지방에 근거를 둔 원소등 호족의 틈바구니를 떠돌며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다. 결국 조조에게 밀려 형주로 내려와 유표에 의탁할 처지에 놓여 있는 유비는 변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의 대업을 도외중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저자 : 자오위핑

저자 자오위핑 趙玉平은 인력 자원과 중국 고전 관리 사상의 전문가로 기업 관리 이론과 팀장 리더십에 정통한 관리학 박사이다.

청화대학교, 복단대학교, 성도전자과학대학에서 MBA 과정을 강의하며 연구활동을 했다.

중국 국영 방송과 북경 TV의 인기 프로그램인 〈심리방담〉과 〈과교관찰〉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 10년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왕통, 중국노키아그룹, 중국핵공업부, 중국석유그룹, 중국석유화학그룹, 상해대중자동차그룹 등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기업에서 인사관리 및 소통과 인력 자원 관리를 지도했다.

저작으로는 수호지의 《양산정지》, 《전통문화와 현대리더십》, 《성공적인 매니저의 이미지메이킹》, 《부하 직원 징려와 육성》, 《강자보다 더 강해져라》등 다수가 있으며 모두 중국 내 대기업들의 훈련 교재로 사용되어 널리 호평을 받고 있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하지만 이책은 제갈량의 각도에서 분석한다. “훌륭한 짐승은 나무를 선택하여 보금자리를 짓고 훌륭한 신하는 군주를 선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갈량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유비 집단의 텃세를 물리치고 조 직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준비를 하였다.

아무리 인재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어떻게 했길래 지도자 로 하여금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 찾아오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제갈량은 어떤 책략을 사용하여 이렇게 큰 흡인력을 만들에 낼수 있었는가? 이문제는 지금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나한테 능력도 있고 말주변도 있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기업에 면접하러 갔다 와서 풀이 죽었길래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가서 보니 ‘능력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뚜렷한 인상도 남기지 못해서’ 라고 한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능력을 키우며 스펙을 위하여 노력한다. 문제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포장”이라는 단어가 필요 한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의 기본공식은 ‘성공 = 능력+태도+기회+포장전시’라 할수 있으며 이 네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갈량도 바로 이런 문제를 알았다.

제갈량도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삼고초려의 고사에서 보듯 당당하게 유비 핵심 지도 자에 오른다. 제갈량이 자신을 포장한 방법은 이렇다.

사람들의 입을 빌어 신속하게 이목을 끈다.

- 입소문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장한다. 단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 예: 서서, 사마휘 등 차이를 만들어 주목을 끈다.
-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용에 비유하여 와룡이라 칭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향기로 유혹해 수요를 일으킨다.

- 제갈량은 융중에 은거하면서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춘적이 없었다.

무대위에서는 큰소리로 떠들고 무대 밑에서는 목소리를 낮춘다

- 찾아온 유비를 두 번이나 만나지않고 세 번째도 낮잠을 잔후 만났다. 제갈량이 대접을 소홀히 하고 시험할수록 유비는 제갈량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삼고초려 상황)
- 만난 후에는 처음에는 할수 없다고 사양한 후 정말 잘 할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신을 낮추는 말은 실재의 재능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포장 방법으로 제갈량을 스물일곱에 유비 집단의 핵심 간부로 발탁되어 중원의 강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또 제갈량은 평생동안 경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첫째가 불충하고 변절하여 투항하는 사람이고, 둘째가 남에게불경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이며, 셋째는 야심이 넘쳐 개인의 이익을 조직위에 두는 사람이다.

유비가 서천을 다스릴때 유비가 팽영이라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중용을 하자 팽영은 오만해지고 의기양양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팽영은 여로모로 방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유비는 좌천이라는 행위를 빌어 팽영의 일하는 태도 와 충성심을 시험해 보았다. 만약 패영이 조금의 원망도 하지않고 유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가면 그를 다시 중용할 생각이었다.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포장”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의 기본공식은

‘성공 = 능력 + 태도 + 기회 + 포장전시’ 라 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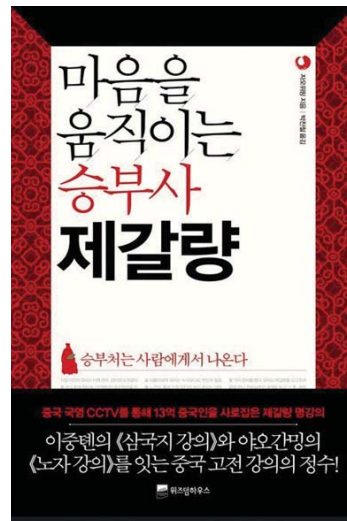
이 네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팽영에게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할 좋은 기회였지만 팽영은 이런 도량이나 안목이 없었고, 특이양양하게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좌천 발령을 받자 마치 활짝 핀 꽃이 서리를 맞고 고고하던 공작이 물벼락을 맞은듯 행동 하였다.

삼국지에는 팽영이 아주 낙담하여 마초를 찾아 갔다고 기록되었다. 여기서 그는 마초에게 모반을 부추기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말 한마디 때문에 팽영은 중용은 커녕 반란 선동죄로 큰 화를 입었다.

팽영이 불평을 늘어 놓은 것은 우리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기분이 나빠서 한번 내뽐는 말일수도 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직장 상사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칠 결심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좋은 것은 기분 나쁠때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를 찾아가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통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흥분될 때 더욱 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좋지않은 기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책에서 두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 번째가 ‘냉동법’이다. 기분이 좋지않을때 자신을 얼음이라 생각하고 단단하게 얼려서 말도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한다. 그렇게 계속있으면 기분이 점점 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화를 불어오는 모든 행동은 화를 내기 처음 30초 내외 폭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악마의 30초’라 부른다. 이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기가 힘들고, 처음 분노가 폭발할 때 자신을 다스리고 조금있다가 냉정을 찾으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전이법’이다. 마음이 불쾌해 이를 조절할 수 없으면 바로 현장을 떠나서 환경을 바꾸어 가벼운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통쾌하고 기분이 풀리는 말도 나중에 가장 먼저 후회할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기분을 관리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다

또 저자는 제갈량의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인재의 성향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상황에 알맞게 행동 했다는 것이다. 유비가 서촉을 취하고 기존의 형주집단과 서촉의 간부 집단을 다룰때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 했으며, 외모나 출신을 떨어지지만 실력은 출중한 이들을 그에 걸맞게 중용했으며, 그의 능력에 알맞게 배치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적용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나, 공사를 완벽하게 구분했으며 민의를 챙겼다고 보아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갈량은 지략가이며 군사 전문가이지만, 그보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전에는 삼국지를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그 시대 인물들과 당시의 상황들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당시 상황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을 읽고 나 자신의 인생길에서 나의 선후배 동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철학과 성품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보건행정과 _ 육은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것은 “사람”에 달려있다. 사람은 물론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에 초점을 두면 원하는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이 책은 강조한다.

‘협상’ 이랑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창한 일들만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보는 인질범과의 협상, 국가 간 외교협상, 기업 간 인수합병 등,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순간 협상을 하며 살아간다. 아이와의 용돈 협상, 교통경찰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 협상, 직장에서 자료수합에 따른 협상 등이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협상부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협상까지 원칙은 하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어내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책에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 15강에 걸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들어 12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공한다.

저자 :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STUART DIAMOND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 일할 당시 폴리처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곧 변호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협상 전문가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JP모건 체이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100대 기업 중 절반이 그에게 컨설팅을 받았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UN 같은 국제기구도 그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버드, 컬럼비아,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현재 모교인 와튼스쿨에서 협상 코스를 강의하고 있다. 그의 협상 코스는 와튼스쿨에서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 들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유능한 협상가가 되려면 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 협상방법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원칙들 중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고르고,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개선한 후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협상의 방법을 익히는 길이다.

쉽지 않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쉬울리 없다.

하지만 조금할 필요는 없다.

협상은 평생 이루어 질테니 연습시간도 평생인 셈이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모습을 보여야 협상에서 이기기 쉽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서 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뛰어난 협상가는 거슬리는 발언을 삼가고 창의적 선택 사항을 고려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상대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발언을 하며 공통사항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표준을 이용하는 법도 훌륭한 협상도구다. 한 사람이 밤11시에 끝나는 맥도날드에서 11시 5분전 감자튀김을 샀다. 그는 감자튀김이 눅눅한 것을 보고 새 걸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점원은 5분 뒤면 문을 닫는다고 거절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거나 직원에게 화를 내며 항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없이 카운터의 광고지를 들고 다시 점원에게 갔다. 그 광고지에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새 감자튀김을 먹는데 성공한다. 누구든지 상대방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밟는 당연한 방법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의 원칙을 항상 되새기며 너무 과도하게 파고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낼수록 거래 대상이 늘어난다. 상대가 무심코 던지는 눈빛과 몸짓, 말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집중하고 그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면 훨씬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 진정한 무형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니즈까지 파악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여행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행을 소재삼아 대화를 이끌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어떤 사람이 화요일에만 반값 판매하는 세트메뉴를 일요일에 먹고 싶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반값에 팔지 않았다. 그는 우선 아무 불평 없이 그 메뉴를 주문하고 종업원과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팁박스에도 1달러를 넣었다. 이야기가 다 끝난 후 종업원은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었다. 인간적 소통을 하는 것이 비결인 것이다.

책에 나오는 몇가지 사례를 요약해 보았다. 모든 자기계발서가 그렇듯이 이러한 원칙들을 안다고 협상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협상가가 되려면 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 협상방법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원

칙들 중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고르고,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개선한 후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협상의 방법을 익히는 길이다. 쉽지 않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쉬울리 없다. 하지만 조금할 필요는 없다. 협상은 평생 이루어 질테니 연습시간도 평생인 셈이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일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독서 초보들을 위한 독서 입문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고

소속 _ 민원여권과 | 성명 _ 이재춘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단순하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가 소설 형식의 자기계발 도서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기도 했지만 〈홍대리〉 시리즈가 꽤 유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이지성 작가는 어느 정도 신뢰받는 작가이기도 하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책 읽기에 부담이 없다. 소설 형식이다 보니 책의 내용이 딱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 도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홍대리는 의욕이 없는 회사원으로 등장한다. 흔한 말로 해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인사이동을 받고 여자 친구에게도 이별을 통보받는다. 흔히 TV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샐러리맨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친근하기 그지없다. 그런 그가 친구 명훈의 소개로 독서 천재 홍진수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독서를 통해 점차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실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힘들다. 나는 독서에 대한 다짐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일년 동안 읽은 책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이다. 흔히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것인데 그러한 핑계를 이지성 작가는 책의 머리말부터 일축해버린다.



앞서 <홍대리>를 읽기 쉬운 책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책이기도 하다. 단순히 읽는 것이라 쉬운 건 맞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처럼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면 무척이나 힘들다. 한 가지 더 어려운 불편한 진실은 독자들이 자신의 책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를 통해 프로리딩 또는 슈퍼리딩의 세계로 입문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작가가 말하는 독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로 자기 분야에 관한 책 100권 이상을 읽고 자신의 내공을 쌓는 프로 리딩의 독서를 말한다.

둘째로 슈퍼 리딩은 1년에 365권의 자기계발 도서를 읽고 그것으로 인해 성공자의 내공을 쌓는 독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리딩은 인문고전의 책 읽기를 통해 리더로 거듭나는 독서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다.

1년에 고작 5권 정도의 책을 읽는 나에게 버거운 숫자인 셈이다. 독서 습관이 들지 않은 나의 경우

독서는 모든 일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허비 하면서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작가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책의 마지막 부록 부분에 보면 단계별로 따라 읽는 홍대리가 추천하는 도서목록 155권이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잘 읽지 않는 대다수의 독서 초보들을 위한 작은 배려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말하고 있는 독서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독서의 고수들은 하루에 한 권 또는 두 권까지 읽는다는 이야기에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았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나는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쓰고 그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그 이유는 책을 읽고 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읽으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시 생각나기 때문이다. 정독을 해서 읽어도 책을 덮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나로서는 아직도 하루 한 권의 책 읽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터뷰를 내가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이지성 작가를 만나 지금껏 읽었던 수많은 책이 기억이 나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 작가는 책의 이야기를 마치며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논어를 읽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작가는 독자들이 프로 리딩의 세계에 들어가길 바라면서도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 단 한권의

책을 읽더라도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자기계발 도서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책이다. 하지만 읽기에는 분명 편한 책이 맞다. 독서 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독서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를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

저자 : 이지성

||서울에서 출생, 전주교대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교대 2학년인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97년에 시집 '언제까지나 우리는 김디깊은 강물로 흐르리라'를 출간했다. 이후 세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2000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2003년에 사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밝힌 '학원과의 필요없는 6·3·1 학습법'으로 공식 데뷔했다. 이후 5권 넘는 교육 관련 서적을 썼다. 2008년에 음란물 중독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상담한 기록인 '피노키오 상담실 이야기'를 내놓으며 사직,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자기계발서는 2004년부터 출간했다.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시작으로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 '행복한 달인'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등을 썼는데 대부분의 책이 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기독교 서적은 04년에 출간한 순교실화소설 '사람아 내게 죽기까지 충성하여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억분의 1의 기적'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등 6권 넘게 썼다. 2010년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출간하면서 한국 사회에 인문고전 독서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 2012년에 인문학자 황광우와 함께 인문고전 독서가 혁명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고전혁명'을 출간했다.

자기계발과 인문고전 독서는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팬카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울역, 왕십리, 대전, 부산 등지의 빈민가에서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 자료를 팬카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또 한국기아대책과 함께 세계 최빈국 어린이들을 일대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와 세계 최빈국 마을에 우물을 파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가의 주요 저서들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 YES24 제공

월요일의 약속

소속 _ 의약과 | 성명 _ 박은정

월요일은 주말의 여운이 남아서 인지 더욱 힘들게 느껴 집니다. 덜컥거리는 지하철 출근길에는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어둑어둑한 퇴근길은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밀려드는 민원에 기진맥진해져 퇴근시간 6시를 한참 넘기고도 그냥 자리에 앉아 멀뚱하니 컴퓨터만 보고 있다가 겨우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날 택배로 도착한 '청소부 밥'을 펼쳐 들었죠. 그때부터 '월요일의 약속' 아니 '퇴근길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로저는 트리플에이사의 사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파티에서 권을 차지한 미모의 아내와 두 딸을 둔 남부러울 것 없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사장으로써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집안에서는 남편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가족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시간은 부족했고 업무는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회사의 청소부 밥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마다의 짧은 만남을 통해 밥 아저씨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섯 가지 지침을 듣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너무 잘 알고 계시다구요? 근무 중엔 중간 중간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나만의 취미생활 하나쯤은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정말 충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맹목적인 취미생활이 아닌, 의무감에서 가지는 가족과의 주말데이트가 아니라 함께 있어 행복한 정말 배터리 급속충전 같은 재충전의 시간들 말이죠.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을 하다가도 요즘엔 다 접어놓고 차 한 잔을 마시곤 합니다. 업무도 마친가지구요. 가끔은 나를 위한 선물도 주면서 잠깐 쉬었다 하자구요.

두 번째 지침: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밥 아저씨는 결혼 3년 만에 세 아이의 아빠가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와 부담감에 지쳐있던 그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에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어린 딸이 식탁보에 와인을 었지르자 욕하는 마음에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걸, 어찌자고 셋씩이나 낳자고 그런 거야!' 하고 말해버리죠. 크게 상처받은 아내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재치 있는 복수를 합니다. 볼링게임에 입고 갈 남편의 셔츠에 이 글귀를 앞뒤로 수를 놓아서 가방에 넣어주죠.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어쩔 수 없이 게임 내내 그 셔츠를 입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가족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축복이라는 말을 들으니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은 짐스럽게 느껴졌던 딸로써 아내로써의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고 나니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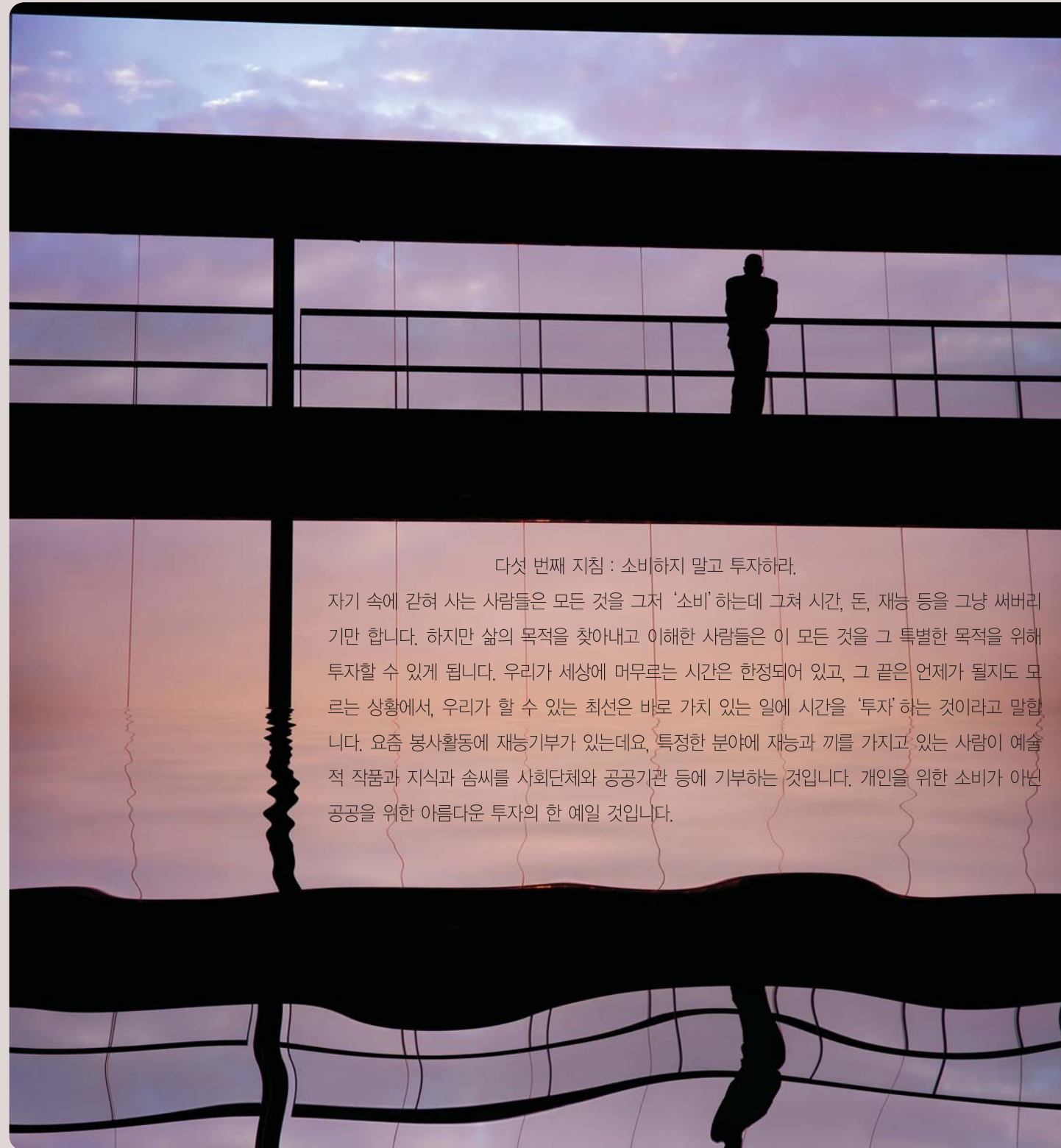
저번 주 미사 강론시간에 신부님께서 옛날 우화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문득 이 지침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의 정원에 오랜만에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무며 꽃들이 모두 활력을 잃고 시들시들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옆에 있던 떡갈나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떡갈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원의 나무들과 꽃은 자신들의 초라함과 모자람에 대해 매일 불평불

만을 늘어놓고 투덜대다가 저렇게 활력을 잃고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장미는 자신의 가시가 너무 뾰족하다고 투덜대고, 복숭아나무는 포도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투덜대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 같이 가시가 곧게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자꾸 쳐진다고 투덜댁니다." 왕은 속상한 마음에 정원을 다시 둘러보고 있을 때 유독 싱싱한 팬지꽃을 발견합니다. 왕은 기쁜 마음에 묻습니다. "팬지꽃아, 너는 다른 꽃들처럼 시들지 않고 어떻게 그리도 싱싱하니?" 팬지꽃이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예쁘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보잘 것 없는 꽃입니다. 이런 저를 정원에 심으신 왕의 뜻을 항상 기억하며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왕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로 왕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팬지꽃을 더욱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장미도 달콤한 맛과 향을 가진 포도와 복숭아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투덜대다가 불행해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지침: 배운 것을 전달하라.

로저는 밥 아저씨에게서 배운 지침들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이웃 앤드류에게 전함으로써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밥 아저씨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다섯 번째 지침 :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저 '소비' 하는데 그저 시간, 돈, 재능 등을 그냥 써버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아내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끝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봉사활동에 재능기부가 있는데요, 특정한 분야에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적 작품과 지식과 솜씨를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소비가 아닌 공공을 위한 아름다운 투자의 한 예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침: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지만 말고 자신의 아이에게 다른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유산임이 틀림없습니다. 타인과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임을 밥 아저씨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밥 아저씨의 여섯 가지 지침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만 힘들다는 생각도 접을 수 있었고, 생각을 바꾸니 지겹기만 했던 업무도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막상해보면 그리 힘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만이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변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저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밥 아저씨와의 월요일의 약속에 함께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은이 : 토드 홉킨스(Todd Hopkins)

이 책의 모티브를 제공한 전문청소업체 오피스 프라이드를 설립, 현재 10개 주 2천여 개의 건물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미 곳곳에서 사업가의 생존전략, 성공적인 세일즈 기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주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40세 이하의 40인'에 선정되었으며,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 CBMC(가독실업인회) 회장으로 있다.

지은이 레이 힐버트(Ray Hilbert)

재치 있고 열정적인 강연으로 이름난 리더십 강연자로, '레거시 리더십 코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더십 있는 경영자를 육성하는 여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성 선교사역단체인 프로미스 키퍼스의 지부장이며, 인디애나폴리스의 비영리단체인 트루스 앤 워크(TRUTH@WORK)의 공동설립자이자 현 회장으로 있다.

☞ 토드 홉킨스와 레이 힐버트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6차 WFBSC 국제클린페어/2006 제16차 세계건물관리연맹총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10월 16일 '21세기를 이끌어갈 비즈니스 리더십'이란 주제로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